

# 한해 마무리, 새로운 시작... '조르주 루오' 전과 함께

내년 1월29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유화·드로잉등 200여점  
31일 조영남, 1월8일 서경석 강연...가족행사 프로그램도 진행

“개인사 사회, 나라간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품과 대화를 나누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소중함을 진지하고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주는 위안과 위로도 얻어주시구요. 치유하고 성장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경석

조영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에서 만난 정음모 신부는 루오의 대표작인 '미제레레' 연작의 해설을 썼다. 그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때야말로 조르주 루오전을 감상하기 좋은 때라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조르주 루오전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2023년 1월29일까지)은 종교화의 대가이자 '깊이 패인 주름 속에 고통을 겪는 자들의 말없는 친구'이고자 했던, 20세기 예술 거장 조르주 루오(프랑스-1871~1958)의 예술과 삶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리 국립퐁피두센터, 조르주 루오재단 소장작에서 엄선한 작품 200여 점을 만난다. 유화, 드로잉,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기, 타피스 트리 등 그의 전 생애를 망라한 작품으로 원색의 화

려한 색감과 두터운 마티에르, 굵은 선면 등 루오 작품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작들이다.

58점의 판화 연작 '미제레레(Miserere)' '루드 밀라', '베로니카' 등의 대표작품과 그가 평생 두고 작업했던 광대와 베에로를 소재로 한 '무지개 곡마단의 소녀 마술사', '어린 베에로'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연계 전시인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시선 공명'에서는 이중섭·구본웅·한묵·이봉상 등 23명 작가의 작품 40여점을 만난다.

미술관은 '조르주 루오'전을 좀 더 흥미로운 시각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이 내년 1월29일까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으로 만날 수 있는 '뮤지엄 오디세이'도 진행중이다.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오후 3시) 열리는 '명작 스캔들'은 가수이자 화가로 활동중인 조영남을 초청, 미술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토크쇼로 진행된다. 루오 작품 소재의 창작과 개념, 독창적 작품성의 위대함을 직접적으로 풀어보는 버라이어티 쇼로 루오의 실험적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지난 18일 '천상의 컬렉션'을 진행했던 개그맨이

자 방송인 서경석은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다시 한번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대 불문과 출신으로 문화재 배틀쇼 'KBS-천상의 컬렉션' 진행자로도 활동한 서경석은 인간의 고귀함을 담은 루오 미술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그 예술작품의 소중한 가치를 재미있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뮤지엄 오디세이'는 루오특별전 관람자에 한해

사전예약(선착순 200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가족 행사 프로그램 중 '와글와글미술관'은 신년 가족 특별행사 '웰컴 2023! 행복미술관'을 31일(오전 10시~오후 2시), 1월1일(오후 1시~5시) 두차례 개최한다. 주 프로그램은 신년맞이 행운을 잡아라 토끼 페이스 페인팅, 행복 캘리그라피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G.MAP, 민주·인권·평화 영상 콘텐츠 제작 무료 배포

이정미 작 '서로를 물들이는 빛'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미디어 영상 콘텐츠 두 종류(GMAP 미디어 파사드용, 75인치 모니터 배포용)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최 '2022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일러스트 분야 대상 수상작인 엄다미 작가의 '서로를 물들이는 빛'이다.

'서로를 물들이는 빛'은 축하와 환영의 순간, 신에게 소원을 빌 때, 추모 의식 등에 주로 사용된 소중하고 값진 의미를 밝혀주는 '빛'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번 콘텐츠는 일러스트 원작 '서로를 물들이는 빛'에 영상 효과와 음악을 삽입, 생동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원작의 의도를 살렸다.

콘텐츠는 촛불을 들고 있는 각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영상으로 제작한 이정미 작 '서로를 물들이는 빛'

이뤄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며 각 나라의 전통의 상을 표현하는 동시에 서로 화합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오월 광주정신과 민주·인

권·평화 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한 콘텐츠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혼자보단 둘, 둘보다는 셋'

윤연우 개인전, 내년 1월 3일까지 아크갤러리



'여름밤 배드민턴'

윤연우 작가는 다양한 색상을 짜넣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직물 공예 '타피스트리(Tapstry)' 작업을 한다.

씨실과 날실의 수 없는 교차가 이뤄지고, 그 실들이 다채로운 구도와 색상으로 엮이면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윤연우 작가 내년 1월 3일 개인전이 내년 1월 3일까지 광주 아크갤러리(광주시 동구 남동 52)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제목은 '혼자 보단 둘, 둘보다는 셋'이다. 윤 작가는 나와 타인의 관계, 그 사이에 놓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타피스트리를 비롯해 드로잉, 세라믹 조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모두 30여점이 나온 전시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두 사람이 등장해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타피스트리로 작업한 '여름밤 배드민턴'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떠올린 후 구상한 작품이며 세라믹 조각 작품 '생애 첫 집'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실'이 갖고 있는 재료적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해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낸 점이 인상적이며 원색의 색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전남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윤 작가는 예술공간 집 추천작가로 선정돼 첫 개인전 '재현의 재현'전을 열었으며 김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당선돼 개인전 '동굴의 오후'전을 열었다.

서울미술관 '겨울 동물원'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해 첫 금요일 김혜안 피아노 독주회

2023년 1월 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김혜안(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내년 1월 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과정과 피아노 듀오 석사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김혜안은 제10회 불가리아 슈베르트 피아노 듀오 국제 콩쿠르 1위,

TBC 음악콩쿨, 서울바로크 합주단 음악콩쿨 2위 등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이후 독주회와 더불어 불가리아 내셔널 라디오 음반 녹음과 더불어 한국 리트포럼 정기연주회, 음악춘추 신인음악회 등 다수 음악회에 함께하고 있다.

이날 김혜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나장



조'와 드뷔시의 '영상 1권', 슈만의 '다채로운 작품들', 쇼팽의 '문도 다장조 작품번호 73'을 연주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7448-7410.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40

1982 - 2022

##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본점</b>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b>서울점</b>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b>순천점</b>	중앙시장 앞	061) 752-9940